

사회현상의 미시적 기반*

황 수 익**

서 언

많은 사회과학적 설명들은 자본주의의 등장, 혁명의 발생, 사회주의의 몰락과 같은 하나의 거대한 사회현상을 종교개혁이나, 사회적 좌절감의 증대라는가, 경제적 효율의 저하와 같은 다른 하나나 여러 사회현상의 결과로 설명한다. 이와 같이 하나의 사회적 유형, 구조 또는 실체를 다른 사회현상으로 설명하는 거시적 설명(macroexplanation)은 사회과학자들의 유일한 설명 양식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사회과학적 업적들이 취하고 있는 설명양식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 유형은 사회과학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철학에서도 부단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비판의 요지는 거시적 설명은 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고, 따라서 그것의 설명력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사회적 기술이나 설명은 개인들에 관한 사실에 기초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개인주의⁽¹⁾의 주장은 방법론적 전체주의(methodological holism)와의 오랫동안에 걸쳐 여러 형태(verson)로 전개되어 온 논쟁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해졌다. 그러나 이 방법론적 입장은 아직도 단일의 통일된 주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그것은 상호 관련은 있지만 서로 상이한 주장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주장들에 대한 개인주의자들의 입장도 일관되지 않음을 보게 된다. 개인주의적 입장은 사회적 실체(social entity), 사회적 개념의 의미, 그리고 사회적 설명에 관하여 표명되지만, 이 모두에 관하여 일관되게 표명되지 않는 경우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설명에 관한 한 확실히 개인주의적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아직까지의 논쟁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교조적 이유에서가 아니라 사회과학적 설명의 설명력을 제고하기 위한 보다 실천

*이 논문은 1993년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서울대 교수, 정치학

(1) 이하에서는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각각 전체주의와 개인주의로 약칭될 것임.

적이고 실용적인 이유에서 그러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거시적 설명에 대한 개인주의적 대안은 집합적 설명(aggregative explanation)이다. 이 설명 양식은 사회현상이 인간들의 행위의 결과라는 거의 자명한 사실에 입각해 개인들의 행위가 어떻게 통합되어서 거대한 사회현상을 이루어내는지의 과정적 기제(mechanism)를 밝히고자 한다. 이 설명 양식은, 경제학의 균형이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다. 최근에 사회과학자들의 새로운 주목을 받게 되는 몇 가지 계기가 있었다. 그 하나는 1970년대부터 일부 경제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던 거시경제학의 미시적 기반에 관한 논의이다. 이들은 현대(케인즈) 경제학의 거시적 설명이나 예측이 무력해진 이유는 거시경제학과 미시경제학의 연계가 부적절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에 의하면, 기존의 케인즈 경제학의 거시적 변수들이 미시적 기반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비판의 정당성은 7. 80년대의 거시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경제학자들이 고전학파이거나 케인즈학파이거나 모두 거시적 변수를 수많은 개별적 경제 주체들의 상호행위의 집합적 효과로 해석하려는 노력에서 나타난다.⁽²⁾

다음은 분석적 맑스주의자들의 문제 제기이다. 맑스의 이론 가운데 오늘날에도 타당한 것은 이론의 '내용'이 아니라 '방법'이라는 주장을 흔히 듣는다. 맑스의 이론은 19세기의 경험을 분석한 것이라 그의 여러 이론적 명제들은 달라진 20세기 후반에서는 타당성을 갖지 못하나, 맑스의 방법은 아직도 타당한 것 — 맑스주의자들에게는 "유일한 과학적 방법" — 으로, 오늘의 맑스주의자들의 과업은 새로운 상황을 그 방법을 사용해서 분석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분석적 맑스주의자들의 견해는 정반대이다. 이들은 맑스가 주로 다루었던 착취, 계급투쟁, 가치체계 형성, 기술의 변화와 같은 이론적 관심에는 동조하나, 맑스의 이론구성의 방법은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쓸모없는 것이고, 그러한 방법으로 구성된 부분의 맑스이론은 넌센스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가장 잘 알려진 분석적 맑스주의자인 엘스터(Jon Elster)에 의하면, 맑스는 설명에 관한 한 개인주의자인 동시에 전체주의자로서, 전자인 한에 있어서 맑스는 탁월한 사회과학자이나, 후자로서의 그는 사회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저해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른바 정통 맑스주의자들은 비과학적인 맑스를 답습함으로서 사회이론으로서의 맑스주의의 발전을 가로막았다

(2) Edmund S. Phelps, et al., *Microeconomic Foundations of Employment and Inflation Theory*(London: Macmillan, 1970). N. G. Mankiw, "Understanding Real Business Cycles,"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Summer 1989, pp.51-79 참조.

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맑스의 비과학적인 경향 가운데 하나는 변증법적 유물론으로 포장된 집단(전체)주의와 기능주의의 결합이었고, 맑스주의의 발전은 맑스 자신이 개척했던 개인주의적 경향을 정치함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³⁾ 이러한 주장은 많은 논쟁을 야기했고, 그 타당성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이견이 있어 왔지만, 개인주의적 집합적 설명양식에 대한 세인의 관심을 고조시키기에는 충분한 것이었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미국의 개인주의적 경향과 유럽의 집단(전체)주의적 경향을 접목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미국과 독일의 일부 사회과학자들 특히 사회학자들 사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⁴⁾ 이들은 어느 한 경향만에 대한 강조는 더 이상의 학문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근본적 한계를 갖는 것으로, 이 두 경향이 각각 간과했던 것을 보완하거나 암묵적으로 전제했던 것을 명백히 함으로써 미시적 수준의 분석과 거시적 수준의 분석을 통합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물론 결합 방법에 대하여는 아직도 현저한 이견을 보이고 있으나 적어도 그들이 의견을 달리하는 바의 의미를 평가할 수 있는 공동의 틀을 마련함으로서 이제 두 경향 사이의 대화가 더 이상 馬耳東風만은 아니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 논문은 거시적 설명의 대안으로서의 집합적 설명을 옹호하고, 집합적 설명의 기본구조를 밝히고, 전반적으로 아직도 초보적이고 단편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집합의 양식에 대한 연구 가운데서 비교적 그 개념이 명확한 집합의 유형인 반목적성(counterfinality)와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의 구조를 소개할 것이다.

사회현상의 미시적 기반

사회과학적 연구를 분류하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특정 연구가 '무엇을 무엇으로' 설명하는지에 초점을 두면, 사회이론들은 다음과 같은 네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⁵⁾

(3) Jon Elster, *Making Sense of Marx*(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85) pp.3-5.

(4) J.C. Alexander, B. Giesen, R. Muench, N.J. Smelser, eds., *The Micro-Macro Link*(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87) 참조.

(5) James S. Coleman, *Foundations of Social Theory*(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90) 제1장과 A. Levine, E. Sober, and E.O. Wright, "Marxism and Methodological Individualism," *New Left Review*, 1987, March/April, pp.67-83, 특히 p.79 이하 참조.

		설명항	
	개인	사회	
피설명항	개인	유형 1	유형 2
	사회	유형 3	유형 4

유형 1과 2의 이론들은, 투표행위나 소비자 선택, 또는 개인의 태도나 가치관 등에 대한 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의 행위나 속성을 설명되어야 할 연구 대상으로 한다. 유형 1은 주로 개인의 내재적인 요인을 설명변수로 삼고, 이러한 요인이 행위로 나타나기까지의 과정에 연구 초점을 둔다. 개인의 행위를 개인의 심리적 성향의 외적 표출로 보는 연구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유형 2는 개인의 행위를 그의 외적 특성이나 사회적 환경의 특성 등과 연계시켜 설명한다. 예컨데, 투표행위를 설명함에 있어서 그의 연령, 직업, 계층 또는 계급, 출신지역 등을 고려하는 연구들이 유형 2에 속한다.

유형 3과 4의 이론들은 개별적인 인간들의 행위가 아니라 사회현상 즉 어떤 종류의 것이든 일종의 사회체계의 행위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 사회체계는 작게는 2인의 행위일 수도 있고, 크게는 전 사회 또는 세계체계일 수도 있다. 이러한 거대한 사회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개인의 행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바와 유사한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유형 3의 이론은 체계의 내적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이론들은 체계의 구성 요소들이 어떠한 상호작용의 과정을 거쳐 설명하고자 하는 사회현상을 그 사회현상보다 낮은 수준의 현상들로 내려가 그 현상들의 특성의 일정한 배합 또는 집합의 결과로 설명한다. 이러한 유형의 설명이 집합적 설명이다. 거시적 수준에서 미시적 수준으로 내려감에 있어서 여러 단계를 상정할 수 있으나, 개인주의적 이론들은 개인들의 행위나 속성의 수준에까지 내려 갈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형 4의 이론들은 사회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유형 2의 개인적 행위의 설명에 있어서와 유사하게 그 현상의 다른 변수나 그를 포함하는 보다 큰 사회현상의 특성을 설명항으로 한다. 이러한 거시적 설명은 흔히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하나는 이른바 '自然史的' (natural history) 설명이다. 이는 사회현상의 통시적 변화 유형에 주목하는 설명으로 역사의 발전단계론이나, 혁명의 자연사,⁽⁶⁾ 경기순환론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어느 한 체계의 속성을 그 체계나 그를 포함하는 상위 체계의 다른 속성과 관련시키는 것으로, 그 관련의 양태는 이론에 따라 인과적 (causal), 상관관계적

(correlational), 또는 기능적(functional)일 수 있다.

사회과학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들은 대체로 유형 4의 거시적인 형태를 띠워왔다. 특히 구라파의 사회학자들은 애초부터 그 자체로서 독특한(*sui generis*) 사회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는 데서 사회학의 존재 이유를 찾았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회현상은 개인들의 행위나 속성 또는 신념이나 목표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의 경구는 집단과 사회와 같은 집합체는 그들의 개인적 부분들의 합 이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존재론적 입장은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내부를 들여다 보는 방법을 거의 원초적으로 배제하였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두 가지 길 가운데 하나를 택하는 것이다. 하나는 한 사회현상을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서 독특한 다른 사회현상(들)의 특성과 연관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자체가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가의 운동법칙을 발견하는 것이다. 후자가 극단적인 형태를 취하면, 사회현상은 그에 내재하는 추상적 논리의 구체적, 현상적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나 사회현상의 미시적 기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은 유형 4의 이론들을 정당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들은 유형 4의 설명은 그 설명의 원인적 고리가 유형 2와 3의 결합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만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의하면, 사회현상은 미시적 개인의 수준에 작용하는 연결 고리 즉 원인적 기제가 존재할 때에만 다른 사회현상에 대하여 설명력을 갖는다. 다시 말해서, 한 사회 구조는 그것이 개인들의 속성과 행위를 결정하고 그렇게 결정된 개인적 행위들이 다른 구조적 결과를 결정하는 기제를 밝힐 수 있을 경우에만 설명될 수 있다. 미시적 기반에 대한 연구는 사회 이론의 설명항과 피설명항을 이루는 두 사회현상을 관통하는 미시적 통로를 밝히는 것이다.⁽⁶⁾ 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유형 4의 이론들은 최선의 경우에도 불완전한 설명이다.

미시적 기반론자들의 이러한 주장의 논거는 여러가지이다. 우선 방법론적 개인주의의 영향을 들 수 있다. 개인주의자들의 출발점은, 거시론자들의 경우처럼, 존재론적이다. 이들에 있어서 사회현상은 하등 그 자체로서의 독특한 존재가 아니다. 모든 사회적 존재들은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들의 집합에 불과하며, 따라서 그들은 모두 개인들의 논리적 복합체로 환원될 수 있다. 왓킨스(J. W. N. Watkins)의 다음과 같은 언명은 이 입장의 고전적 표현이다. “사회적 세계의 궁극적 구성요소는 그들의 성향과 그들의 상황에 비

(6) Lyford Edwards, *The Natural History of Revolution*(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67) 참조.

(7) A. Levine, et al., 전계 논문, p. 76.

추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적절히 행동하는 개인들이다. 각각의 복합적 사회 상황과 사건은 개인들, 그들의 성향, 상황, 신념, 그리고 물리적 자원과 환경의 특수한 배열의 결과이다.”⁽⁸⁾ 개인주의자들의 이러한 입장은 거시론자들에게 있어서와 같이 일정한 방법론적 경향을 냉았다. 그러나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오늘날의 사회과학자들에게 하나의 통일된 주의 주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⁹⁾

방법론적 개인주의의 강한 입장은 개인주의적 존재론이 記述的 그리고 說明的 發生(emergence)의 부정을 내포한다는 것이다. 발생적 속성은 거시적 수준의 현상이 그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갖지 않는 그 자체의 속성을 가질 경우를 의미하는 바. 사회과학에 있어서 이의 부정은 집단이 그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행위나 그들 사이의 관계 또는 이 양자로 규정할 수 없는 집단 자체의 속성을 가질 가능성을 부인한다. 따라서 개념 규정의 차원에 있어서의 개인주의는 모든 사회적 개념은 궁극적으로 개인들의 행위, 속성 또는 관계로 정의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설명적 발생은 개인들의 행위에 관한 법칙으로부터 도출될 수 없는 집단적 행위의 법칙, 즉 미시적 법칙에 의존하지 않는 자율적인 거시 법칙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의 부정은 사회적 법칙의 개인적 법칙으로의 환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강한 개인주의적 입장은 존재론, 개념구성 그리고 설명 모두가 논리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따라서 이 삼자 모두가 개인주의적일 것을 요구한다.

약한 개인주의적 입장은 개인주의적 존재론이나 개념구성의 원칙이 설명적 발생의 부정을 내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거시적 설명의 미시적 설명으로의 환원은 이 양자 사이의 연역의 통로를 제공하는 구성 법칙(composition laws) 또는 집합 법칙(aggregation laws)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법칙들은 경험적 법칙이므로 주의 주장에 의해 입법화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거시적 설명의 미시적 설명으로의 환원은 논리적이 아니라 우연적(contingent)인 것이다.

이와 같은 환원의 논리적 지위를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인주의자들의 기본적 설명양식은 미시적이다. 대부분의 미시적 기반론자들은 방법론적으

(8) J. W. N. Watkins, “Methodological Individualism and Social Tendencies,” in May Brodbeck, ed., *Readings in the Philosophy of the Social Science*(London: Macmillan, 1968) pp. 270-71.

(9)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관하여, May Brodbeck, “Methdological Individualisms: Definition and Reduction,” in Brodbeck의 전개서, pp. 280-303. Levine et al., 전개 논문. Daniel Little, *Varieties of Social Explanation*(Boulder: Westview, 1991) pp. 183-201 참조.

로는 약한 입장에 있더라도 연구계획으로는 강한 입장을 취한다. 그들이 환원론의 논리적 약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시적 설명을 고집하는 이유는 사회과학에 특유한 사정에서 연유한다.

우선 사회과학에 있어서는 거시적 설명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자연현상에서와 달리 사회현상에서는 안정적인 규칙성을 보이는 거시적 단위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컨데, 물은 산소와 수수로 구성되나, 산소와 수소의 특성으로 환원할 수 없는 그 자체의 안정적 특성을 가지고, 다른 물체와의 규칙적인 관계를 보이나, 사회현상에서는 그러한 현상을 좀처럼 찾아 볼 수가 없다. 미시적 수준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자율적 거시적 설명은 거시적 수준의 현상 사이의 강한 규칙성에 의존하는데, 사회과학에 있어서의 거시적 법칙은 기껏해야 경향 법칙이고, 그것도 예외 투성이다.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로, 거시적 명제와 자료 사이의 극복하기 어려운 괴리가 존재한다. 그레이(John Gray)가 지적했듯이, 사회과학의 근본적 문제는 증거에 의한 이론의 저결정(underdetermination of theory by evidence)이다.⁽¹⁰⁾ 어떤 사회이론도 자료에 의해 결정적으로 거부되지 않음으로 대항적 이론들이 병존하게 되고, 이들 사이의 경쟁은 과학 외적 요인에 의해 유발되고 지배되는 경향이 있다. 거시적 사회이론은 이러한 증거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한다. 거시적 이론의 설명항과 피설명항이 지칭하는 사회현상은 모두 규모가 큰 반면에 그 사례는 대단히 제약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두 변수 사이의 관계의 확정에 필요한 외적 변수들의 통제는 거의 불가능해진다. 그 결과 거시적 이론들이 제안하는 두 변수 간의 관계가 부수현상(epiphenomena)이거나 선제적 원인(preemptive causation)의 결과가 아니라는 보장은 그만큼 더 약해진다. 부수현상이란 원인과 결과라고 주장되는 두 현상 모두를 산출하는 제 삼의 변수가 존재할 때 발생하고, 선제적 원인은 특정 현상이 그 현상의 원인으로 생각되는 현상의 작용을 선제한 다른 요인에 의해 야기될 경우이다. 다시 말해서 거시적 이론들은 사례가 적은 거시적 현상들을 설명항과 피설명항으로 함으로써 증거와의 관계를 약화시킨다. 허위적 설명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는 피설명항과 설명항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근접해야 한다.⁽¹¹⁾ 거시적 사회현상을 그것의 미시적 수준으로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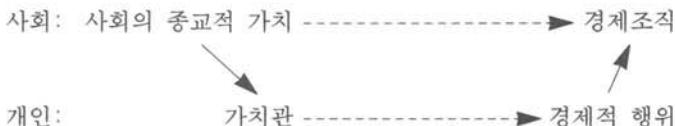
(10) J. Gray, "Political Power, Social Theory and Essential Contestability," *The Nature of Political Theory*, p.100.

(11) T. Beauchamp and A. Rosenberg, *Hume and the Problem of Causation*(Oxford: Oxford Univ. Press, 1981) Chapter 5 참조.

려가서 설명하는 것은 이러한 설명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이다.⁽¹²⁾

사회현상의 미시적 기반을 밝히는 것은 거시적 설명의 신뢰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그 설명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에서 그 자체가 과학적 설명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현상 X가 발생할 때마다 왜 사회현상 Y가 발생하는지를 이해한다는 것은 ‘X가 발생하면 Y가 발생한다’는 언명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과는 다르다. 설명한다는 것은 결국 두 현상 사이를 연결시키는 기제(mechanism)를 밝히는 것. 다시 말해서 “암흑의 상자를 열고, 집합적 사회적 결과를 낳는 암나사와 슷나사, 톱니와 바퀴, 욕망과 신념 등을 보여 주는 것이다.”⁽¹³⁾ 어느 사회과학자도 그가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의 미시적 기제를 밝힐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과학적 성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거시적 이론들이 실제로는 비록 암묵적이고 불완전하게나마 미시적 수준을 전제하고 있다. 콜만(James Coleman)의 해명(14)에 의하면 베버(Max Weber)의 ‘청교도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설명 구조는 다음의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거시적, 미시적 수준의 결합이다.



위의 수평적 화살표에 국한하면, 베버의 이론은 단순히 거시적 명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명제를 증명하기 위하여 베버는 다양한 수준에서 수집된 증거를 동원한다. 우선 사회적 수준에서, 그는 신교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의 경제제도를 비교하여 전자가 자본주의의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았고, 또한 신교 사회의 경제조직을 통시적으로 관찰해서 자본주의가 신교의 도래 다음에 등장했는지를 보았다. 이러한 방법을 통한 증거 수집은 거시적 명제의 증명을 위해 흔히 이루어지는 거의 표준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 의해 수집된 증거는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다. 베버 역시

(12) Jon Elster, *Making Sense of Marx*(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p.5.

(13) Elster, 전개서, p.5.

(14) Coleman, 전개서 p.5-9. 콜만의 도표에 있어서 문제될 수 있는 것은 거시-미시 연계(1)의 방향이 과연 타당한가이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그 방향(?)이 바꿔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종교적 신념을 갖는 것은 개인이고, 어느 사회가 특정의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사회의 대부분의 성원이 그 종교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사회 내의 지역 간의 비교, 지역 내의 종교집단 간의 비교, 그리고 나가서 가족 내의 개인들 간의 비교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증거, 특히 개인 수준에서 수집된 자료의 사용은 베버가 증명하고자 했던 명제가 정확히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그의 명제에 포함된 단위가 사회인가 아니면 개인인가? 개인 수준의 증거의 사용이나 그 자신의 진술에서 미루어 볼 때, 개인적 자료에 대한 그의 관심은 단순히 그의 거시적 명제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보조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기본 가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 기본 가정이란 신교도의 가치관을 갖는 개인은 경제영역에서 특정한 정향의 행위를 하고 이러한 행위들이 자본주의적 경제제도를 낳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이론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재구성될 수 있다.

- (가) 신교의 교리가 그의 신봉자에게 특정한 가치관을 갖게 한다.
- (나) 그러한 가치관을 갖는 사람은 특정한 정향의 경제행위를 한다.
- (다) 개인들의 경제행위에 대한 특정한 정향이 자본주의적 경제조직의 발달을 가져온다.

이와 같이 볼 때, 도표에서와 같이 베버의 이론은 거시적 수준에서 시작해서 거시적 수준에서 끝나지만, 그 사이에 전제된 것은 미시적 수준으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 오는 거시적 수준과 미시적인 것의 결합체계이다. 이 체계가 결여하고 있는 것은 두 수준 사이를 결합시키는 집합의 기제이다. 다시 말해서 베버의 이론은 일정한 정향의 개인적 경제행위들이 어떠한 배합의 과정을 거쳐서 자본주의적 경제 조직을 생성하는지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다. 대부분의 거시 이론들처럼,⁽¹⁵⁾ 베버 역시 이 집합을 단순히 加算的인 것으로 가정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이 옳은 것인지는 차치하고라도 암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전형적인 거시이론가라고 여겨지는 맑스도 간헐적으로 개인주의적 설명양식을 사용하고 있다. 엘스터에 의하면, 맑스는 극단적인 형태의 거시적 설명양식을 구사한 동시에 거시현상의 미시적 기반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탁월한 통찰력을 보였다. 맑스는 특히 '개인들의 행위의 의도되지 않은 결과'로서의 사회현상을 의도적-인과적 틀에서 분석하는데 선구적이었다. 후술(제3장)하는 바와 같이, 인간 행위의 의도되지 않는 결과의 중요성은 여러 학자에 의해 일찍부터 인식되었다. 문제는 개인들의 행위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그들의 의도와는 다른 집합적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밝히는 일이다. 이 미시적 기반을 밝히지 못하면, 인간행위의 의도되지 않은 결과에 대한 분석은 헤겔에서처럼 객

(15) 이 주장에 관하여는 후술할 것임.

체적 목적론(objective teleology)으로 처리되거나 기능주의적 설명으로 전락한다. 맑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음모이론적, 기능주의적 설명은 바로 이 미시적 기반을 밝힐 수 없었던 데서 연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때때로 이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보여 주기도 한다.

맑스의 ‘이윤을 저하의 법칙’을 예로 들어 보자. 맑스에게는 자본주의가 스스로를 파괴하는 기제를 발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다. 이 법칙은 맑스가 발견한 자본주의의 자기 파괴의 기제 가운데 가장 분명하게 표현된 것으로, 그 자신의 표현을 빌리자면 “현대 정치경제학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다.⁽¹⁶⁾ 이 법칙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자본의 유기적 구성 비율의 점증화 경향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이 거시적 현상을 창출하는 미시적 기제에 대한 맑스의 설명은 자못 인상적이다.

새로운 생산방식이 아무리 생산적이라도, 그리고 아무리 잉여가치율을 크게 하더라도, 그것이 이윤을 감소시키는 한, 그러한 방식을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자본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생산방식은 상품의 가격을 낮춘다. 따라서 자본가는 초기에는 그 상품을 그의 가격 또는 아마도 그의 가치보다도 더 비싸게 판다. 그는 그의 생산비와 보다 비싼 내용으로 생산된 그 상품의 시장가격의 차액 만큼을 주머니에 넣는다. 자본가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상품의 생산을 위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평균 노동시간이 새로운 방식을 채택했을 때 소요되는 노동시간보다 길기 때문이다. 그의 생산방식은 사회적 평균보다 우월하다. 그러나 경쟁은 그것을 일반화하고 일반적 법칙에 따르게 한다. 그 결과로 이윤율의 저하가 아마도 처음에는 특정 분야에서 일어나고 결국은 나머지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는데, 이는 자본가의 의지와는 전적으로 독립적으로 일어난다.

우리의 관심사는 ‘이윤을 저하 법칙’ 자체나 위의 진술의 眞偽가 아니라 그의 논의구조이다. 이윤율의 저하를 가져 오는 미시적 기제는 전형적인 ‘수인의 번민’이다. 어느 자본가도 이윤율의 저하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개별 자본가는 이윤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계로 노동력을 대체하는 것이 유리하다(왜 나하면 보다 생산적인 방식을 사용함으로서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보통 이상의 이윤을 실현할 수 있는 반면에 그의 기술혁신이 모두에 의해 채택되더라도 그로 인해 결과되는 평균 이윤율의 감소는 미미하기 때문이다.). 모든 자본가가 이와 같이 할 경우 그들의 행위의 총체적 결과는 모두의 이윤율의 저하이다.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의 이윤율 저하라는 거시적 현상은 이윤율을 극대화하려는 개별 자본가들의 의도적 행위의 의도되지 않은 결과이다.

‘수인의 번민’ 게임은 최근의 발견이지만, 다음의 글이 보여 주는 바와 같

(16) *Grundrisse*, p.748.

이 맑스는 ‘보이지 않는 손’의 裏面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게임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자본주의의 분석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각자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그럼으로써 그럴 의사도 없이 그리고 알지도 못한 채 모든 사람의 사적 이익 즉 일반 이익에 이바지한다. 이 추상적인 구절로부터 당연히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각 개인은 서로 다른 사람의 이익의 실현을 저지해서 이 만인 대 만인의 전쟁이 일반적 긍정 대신에 일반적 부정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귀절의 전반부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고, 후반부는 ‘수인의 변민’ 게임의 기본 논리이다.

오늘날 미시적 분석에 무관심하거나 그것의 적절성을 부정하는 사회과학자들은 아마도 구조주의자들이 유일할 것이다. 구조주의자들은 두 진영으로 다시 나뉜다. 하나는 사회적 구조를 사회현상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보는 일종의 인과적 설명이다. 다른 하나는 비인과적 구조주의로서, 이는 법칙에 의거해설 사회현상을 설명해야 한다는 사회과학관을 거부하고, 사회과학적 ‘설명’은 사회현상의 여러 부분이 어떻게 하나의 추상적 구조를 형성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 있어서의 설명의 전형은 생성언어학에서 비롯되었다. 언어는 수많은 언어적 수행들로 구성되는데, 생성언어학자들은 어느 언어에나 모든 문법적 발화를 생성하는 일련의 단순하고도 추상적인 변형의 규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언어학자들은 언어 행위의 영역이 문장들을 생성해 내는 기저적 문법에 의해 ‘설명’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전형을 따라, 구조주의적 사회과학자들은 사회현상의 기저에 깔려 있는 질서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는 사회현상의 ‘문법’을 찾고자 하고, 그것을 밝힘으로서 그 현상을 ‘설명’ 한다고 주장한다.⁽¹⁷⁾

전자는 유형 4의 거시이론의 일종으로 적어도 여기서 문제삼고 있는 거시이론의 설명적 한계에 관한 한 특별히 다루어야 할 이유가 없다. 후자는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사회이론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하다.⁽¹⁸⁾ 비인과적 구조주의자들의 설명에 대한 특이한 개념은 이들이 갖는 구조에 대한 특이한 이미지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 인과적 구조주의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회과학자들은 구조에 대하여 ‘부분들의 배합’(a configuration among parts)이라는 이

(17) 이 비인과적 구조주의에 관하여 Daniel Little, *Varieties of Social Explanation: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Social Science*, pp. 102-3, 107-12 참조.

(18) 구조주의와 개인주의의 접목 불가능성에 관하여 Bruce Mayhew, “Structuralism Versus Individualism: Part 1. Shadowboxing in the Dark,” *Social Forces*, Vol. 59-2, Dec. 1980, pp. 335-75 참조.

미지를 갖는 데 반하여, 비인과적 구조주의자들은 그것을 사회생활과 역사를 주조해 내는 근본적 토대, 다시 말해 맑스類의 상부구조를 결정하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 즉 레비 스트로스(Levi-Strauss)의 표현을 빌리면 심층 구조(a deep structure)로 본다. 그들에게 있어서 구조는 현상계의 배후에서 또는 그 근저에서 현상계를 창출해 내는 본질적 관계이다.⁽¹⁹⁾ 이러한 형이상학적 전제의 차이는 두 진영 사이에 좀처럼 접점을 찾아 보기 어렵게 한다. 이 두 진영 사이의 대화를 ‘귀먹어리의 대화’로 표현하고 있는 메이휴(Bruce H. Mayhew)에 따르면, 두 진영의 “연구 경로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서 그들을 공동의 대화 속에 묶을 수 있는 공유된 언어나 어떤 교신로도 존재하지 않는다.”⁽²⁰⁾

그러나 모든 것을 형이상학적 입장의 차이로 치부하고 말 일은 아니다. 입장을 달리해서 보면 레비 스트로스類의 구조주의는 설명이라기보다는 설명되어야 할 바를 제공한다. 다양한 현상들의 기저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규칙성을 발견한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지만 그 자체가 그 현상들의 설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예컨데 우리가 우리 사회의 여러 종파의 종교활동을 공부한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놀랍게도 모든 종파의 종교생활이 어떤 추상적인 행위의 ‘문법’에 따른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또 이 문법이 종교와는 무관한 정당의 내부활동의 어떤 규칙성과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가정하자. 이 발견은 많은 사람에게 놀랍고도 흥미로운 것이겠지만, 이 발견은 왜 이러한 규칙성이 종파에 관계없이 그리고 다른 활동 영역에서도 나타나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게 만들 것이다. 행위자들이 의식하지도 의도하지도 않는 행위의 규칙성이나 구조의 발견이 그 현상에 대한 설명을 대신한다는 주장은 행위자들이 의도하지도 의식하지도 않은 사회적 기능의 발견이 그러한 기능을 갖는 행위유형을 설명한다는 초기 기능주의자들의 주장을 연상케 한다. 오늘날 후자를 받아들이는 사회과학자들이 드물듯이 전자를 받아들일 사회과학자 역시 드물다. 한마디로 구조의 발견 자체가 그 구조의 설명을 대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미시적 기반론자들은 레비 스트로스類의 구조주의를 제외한 거의 모든 거시 이론이 암묵적으로 간헐적으로 불완전하게 다루었던 사회현상의 창출기제로서의 미시적 과정을 밝히는 것을 사회과학적 설명의 전형으로 삼는다. 이른바

(19) Peter M. Blau, "Introduction: Parellels and Contrasts in Structural Inquiries," Blau ed., Approaches to the Study of Social Structure (New York: Free Press, 1975) pp.9-15.

(20) 전개 논문. p.339.

미시적 기반의 명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거시적 수준에서의 설명적 관계(인과적이든, 기능적이든, 구조적이든)는 두 가지 면에서 보완되지 않으면 설명력을 갖지 못한다. 하나는 특정한 사회현상을 창출해 내는 개인들을 이러한 설명적 관계를 가져오도록 행동하게 하는 그들의 상황에 대한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개인적 행위들로부터 설명되어져야 할 현상을 가져오는 집합적 과정에 관한 지식이다.⁽²¹⁾ 다시 말해서, 두 사회현상 사이의 관계의 미시적 기반을 밝히는 것은 설명항인 사회현상과 개인의 행위(macro-micro), 그리고 그 개인의 행위와 피설명항인 사회현상(micro-macro) 사이의 연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합리적 선택, 사회구조 그리고 집합적 설명

사회현상에 대한 집합적 설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어떻게 개인들의 특정한 행위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들의 행위가 어떻게 집합적 기제를 통해 사회현상을 만들어 내는가에 관한 것이다. 개인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론은 다양할 수 있고, 이들의 각각은 특정의 집합기제와 결합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사회과학에 있어서 가장 지배적인 개인행위 이론이 합리적 선택이론이라고 할지라도, 집합적 설명이 반드시 합리적 선택이론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져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합리적 선택이론이 개인행위를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만약 그에 그친다면, 합리적 선택이론의 사회과학적 유용성은 현저하게 제약될 것이다) 사회현상을 설명하려 할 때 그것이 취할 수 있는 설명의 유형은 집합적일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집합적 설명의 전형은 합리적 선택이론에 기초하고 있다.⁽²²⁾

합리적 선택이론

합리적 선택이론의 기본전제는 인간은 (어떤) 이유 때문에 행동하는 의도적 존재라는 것이다. 인간들은 그들의 행동을 그들의 지식이나 믿음, 목표, 의미, 가치, 제약 등에 따라 조절하는 행위자(agent)로 개념화되고, 개인의 행위는 목적지향적이고 계산적인 것으로 가정된다. 개인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일정한 가치, 이익 또는 목표를 실현하려고 하고, 이에 비추어 여러 행동 대안들을 평가하고 자신의 가치실현에 가장 크게 기여한다고 믿어지는 대안을 선택한다. 어느 한 행위는 행위자가 인지하고 있는 선택 상황에서 그것이 행

(21) Little, 전계서 p.196.

(22) 행위 수준의 이론으로서의 합리적 선택이론의 장점에 대하여는 Coleman의 전계서, pp.16-9 참조.

위자의 특정한 목적을 실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수단이라는 의미에서 합리적이다. 행위의 합리성은 이와 같이 ‘목적-수단’ 관계에서 규정된다.

크게 보아 합리적 선택이론은 행위자가 인지하고 있는 결정상황의 기술과 결정행위의 내적 논리 즉 결정 규칙으로 구성된다. 결정상황 또는 선택상황이란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모든 변수이다. 이들은 두 개의 범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외적 세계에 대한 그의 지식과 믿음(beliefs)이고, 둘째는 그의 내적 욕망(desires)으로, 이는 그의 의도, 가치, 목적, 선호 또는 효용함수 등으로 표현된다. 전자는 행위자가 논리적,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제약을 고려해서 실행가능하다고 믿는 모든 대체행위들을 생각해내고, 각각의 행위가 가져 올 결과를 결정하는 상황인 인과구조 즉 행위와 결과의 연결 양태를 개념화하는 데 반영된다. 후자는 실행 가능한 대체행위들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나타나는데, 이 평가는 대체행위들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평가로부터 도출된다. 결정 규칙이란 합리적 선택 모형의 활성 원칙(the animating principle)으로, 합리적 결정 규칙이란 단순히 대체행위들 가운데 가장 높이 평가된 행위를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 행위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란 특정 행위의 선택 상황의 요소들을 확인하고, 그 행위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적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인간 행위의 외적 상황을 모수적(母數的: parametric)인 것과 전략적(strategic)인 것으로 나누어 각 상황에서의 최적화 행위를 특징화한다. 모수적 환경이란 행위자가 행위의 환경이 움직일 수 없는 법칙에 지배받는 자연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그것이 다른 행위자들로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들의 행위가 자기의 행위의 결과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거나, 준다 해도 자신보다 덜 세련되게 행동하리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서, 행위자가 자기 자신은 변수로 생각하는 반면에 자기 이외의 것은 상수로 생각하는 환경이다. 이 모수적 상황은 다시 확실성의 상황(certainty), 위험의 상황(risk) 그리고 불확실성의 상황(uncertainty)으로 나뉜다. 모수적 합리성은 주어진 제약 하에 일정한 목적 함수를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전략적 상황은 행위자가 그 누구도 자기보다 덜 합리적이거나 덜 세련되었다고 가정할 수 없는 다른 행위자들과 함께 행동할 경우의 환경을 말한다. 이 경우 각 행위자는 그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결정을 예견해야만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자기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서로 서로에 대하여 똑같이 그러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전략적 상황은 전형적으로 상호의존적 결정 상황으로 이러한 상황에 처한 누구도 결과에 대해

전적인 통제력을 갖지 못한다. 인간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얇은”(thin)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행위자의 목적, 가치, 욕망들을 이익, 효용 또는 선호로 추상화하여 기술하고, 인간의 내면적 결정과정을 효용극대화나 최소값의 최대화(minimax)와 같은 단순한 결정규칙으로 개념화한다. 이 형식적 이론에 의해 모형화된 인간행위는 해석학적 이론(hermeneutics)들이 추구하는 “진한”(thick) 해석을 통해 그려지는 인간 행위의 구체적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모든 이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합리적 선택이론은 현실을 단순화시키는 이러한 가정들을 통해 설명의 구체성을 희생시키는 반면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

그러나 위에서 기술된 이론은 너무나 ‘얇아서’ 즉 경험적으로 공허해서 경험의 세계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 형식적 이론을 이용해서 경험적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진한’ 해석이 필요하다. 이 해석에 있어서 적어도 두 가지 문제점을 해명하는 것이 이 이론에 대한 광범한 오해를 불식하고 이 이론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이론에 관해서 가장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는 효용함수의 내용에 관한 것이다. 이 문제는 합리적 선택이론이 개인의 행위를 개인의 가치나 동기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합리적 선택론자들은 개인의 욕망 또는 효용함수의 내용을 利己的인 것으로 규정한다. 경제학자들이 소비자나 생산자와 같은 경제 주체들의 목적을 이기적인 것으로 일반화하는 것이나, 다운스(A. Downs)가 민주적 제도 하에서 투표자나 정치인(정당)의 동기를 이기적인 것으로 규정한 것은 그 예이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보는 모든 인간 행위가 이기심을 동기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경험적으로 명백히 틀린 가정을 설명의 전제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비판의 초점이다. 그러나 이기적 동기의 가정은 현실 세계의 정확한 기술로 의도된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애타적 또는 비이기적 행위까지도 개인의 이기심이라는 가정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방법론적 결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사실상 이기적 인간들이 어떠한 조건 하에서 자발적으로 협력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합리적 선택론자들의 가장 활발한 연구 영역 가운데 하나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적하고 넘어 가야 할 것은 이기적 동기의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일부 합리적 선택이론가들은 특정 행위에 특유한 동기나 가치로 그 행위를 설명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의 형식에 맞추어 개인의 행위를 再記述하는 것이지, 합리적 설명은 아니다. 만약 합리적 재기술이 설명이라면, 어떠한 형태의 개인 행위도 반증

의 위험 없이 설명되어질 수 있다. 허사니(J. Harsanyi)의 말을 빌릴 필요도 없이, 이러한 형태의 ‘설명’은 완전히 무용한 동어반복적 설명이다.⁽²³⁾ 이론은 다양한 경험적 사실을 법칙, 공리 또는 가정이라고 불리우는 일련의 공통적 전제에 귀속시킴으로서 그들을 설명한다. 따라서 개인의 가치나 동기의 성격은 다양한 인간 행위의 설명적 전제가 될 만큼 일반적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동시에 그 함의가 경험적으로 반증 가능할 만큼 구체적이어야 한다.

합리적 선택과 사회구조

합리적 선택이론에 대한 또 하나의 비판은 이 이론이 主志主義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의 요지는 이 이론이 인간의 행위를 설명함에 있어서 인간의 의식, 이익, 이유와 같은 주관적 요인을 너무 강조하는 반면에 사회적 규칙, 제도 또는 사회 구조와 같은 객관적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일견 정당한 것처럼 보인다. 특히 이 이론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한에서는 그러하다. 그러나 이 이론의 경험적 해석에 이르면 이러한 비판이 오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의 행위는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일정한 결정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다. 합리적 선택은 (외적) 결정상황으로 개념화되는 외부 세계가 제공하는 기회와 제약에 대한 개인적 반응의 모형이다. 따라서 결정 상황은 개인적 반응의 논리와 함께 합리적 선택이라는 개념에 내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선택에 대한 형식적 또는 순수이론들은 결정 상황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주어진 상황에서의 개인의 대응 논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경험적 연구에서는 결정 상황을 정확히 기술하는 것이 설명의 성패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단순히 주어진 것으로 가정될 수는 없다. 따라서 결정 상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대한 정치된 이론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개념을 갖는다는 것은 합리적 선택이론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결정 상황이란 개인적 선택에 영향을 주는 모든 변인들을 지칭한다. 이는 두 범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일정한 時空에 있어서 한 개인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외적 세계에 대한 그의 지식이나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미래 상태에 대한 그의 선호이다. 전자는 특정 개인이 취할 수 있는 행동 대안, 각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23) John C. Harsanyi, "Rational-Choice Models of Political Behavior vs. Functionalism and Conformist Theories," *World Politics*, Vol. 21, p. 518. 이와 관련하여 또한 Brian Barry, *Sociologists, Economists and Democracy*(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p.33 참조.

결과들, 행동 방안과 결과들간의 연계의 정도 등 그 개인의 결정에 유관한 외부 환경에 대한 그 자신의 개념화이다. 후자는 각 행동 대안의 우열이나 효용을 결정한다.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결정 상황을 외적 환경에 국한하면, 결정 상황은 자연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으로 다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간 행위에 대한 자연적 조건의 영향은 너무나 명백해서 재론의 여지가 없다. 사회적 결정 상황은 대체로 규칙의 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기본적 조건은 인간들의 상호간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더불어 산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들은 다양한 사회적 규칙, 규범, 제도 등에 의해 구성되고 규제된다. 루소의 말을 바꾸어 말하면,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지만, 어디서나 규칙의 지배 하에 있다. 특정한 개인이 특정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일련의 사회적 규칙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결정 상황을 규정하는 것은 이러한 일련의 사회적 규칙, 규범, 제도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합리적 선택은 일정한 결정 상황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결정 상황은 일련의 사회적 규칙과 제도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사실에 대한 명백한 확인은 합리적 선택 접근법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합리적 선택 설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인간의 행위를 유인(incentive)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유인이란 행위가 가져오리라고 기대되는 미래 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이다. 인간 행위의 결정인자는 미래에 속하고 따라서 합리적 선택 설명은 미래지향적이다. 그러나 만약에 결정 상황이 일련의 사회적 규칙들에 의해 규정된다면, 합리적 선택 설명의 미래지향적 의도적 측면의 범위는 제한되고, 합리성이라는 개념이 갖는 설명력 역시 근원적으로 제한된다. 결과적으로 인간 행위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결정 상황이 규정되는 기제에 대한 설명과 주어진 결정 상황의 구조 내에서의 의도적 결정에 대한 설명 모두를 요구한다.

위의 논의를 요약하면, 합리적 선택이론이 전제하고 있는 바는 인간 행위는 두 개의 연속적 여과 기제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첫번째 기제는 추상적으로 가능한 모든 행위들의 집합을 실행 가능한 행위들의 집합으로 축소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대안적 행위들이 물리적, 기술적, 경제적, 정치적, 법적 그리고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여타의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더 이상의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러한 여러 조건을 충족시키는 실행 가능한 대안들만이 남아 결정 상황을 규정한다. 두번째 기제는 합리적 선택으로, 이 과정을 거쳐 실행 가능한 대안들 가운데 하나가 선택된다.

모든 거시이론은 인과적 이론이든 기능주의적 이론이든 두번째 기제의 작용을 배제한 채 첫번째의 축소 기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현대 기능주의자들은 인간행위의 문화적(규범적) 결정론을 주장하고, 구조주의자들은 구조결정론을, 제도주의자들은 역할결정론을, 맑스주의자들은 경제 결정론을 각각 주장한다. 이들은 모두 인간들은 왜 선택의 여지를 갖지 못하는가에 관한 이론들이다.⁽²⁴⁾ 만약 이러한 이론들이 각각 내세우는 외적 조건들이 인간의 대안적 행위 집합을 단일한 실행 가능한 행위로 축소시킨다면, 합리적 선택의 개념은 무용한 것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외적 조건에 의한 단일 행위로의 축소는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규범, 규칙, 제도, 구조 등의 규제체계들이 결코 완벽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그 규제 범위에 있어서 모든 상황을 포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호 일관되지도 못하여, 규범충돌, 역할충돌의 현상은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규제체계들은 인위적인 규칙들의 집합으로, 이들의 위반은 자연적 법칙의 경우와는 달리 흔히 성공적일 수 있다. 결국 사회적 변화는 규칙위반 행위로 이루어진다. 모든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사는 완벽하게 안정된 사회가 아니고는 선택행위는 불가피하고, 따라서 제 2의 여과기제를 배제하는 사회이론은 타당성을 갖지 못한다. 구조론과 행위론의 반목은 불필요한 것이다.

집합적 설명

합리적 선택이론은 개인의 행위를 사회적인 모든 것의 중심에 놓는다. 사회적 세계는 결국 개인들의 행위에 의해 움직인다. 사회적 수준에서 무엇인가가 발생한다는 것은 그 사회 구성원이 어떤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단적 행위의 발생, 지속적인 사회제도의 존재, 사회적 경제적 변화와 같은 거시적 현상은 많은 사람들의 합리적 행위의 집합적 결과로 설명된다.

사회 현상은 인간들의 행위의 결과이고, 인간은 의도적으로 행위한다는 사실은 사회과학에 있어서 중요한 합의를 갖는다는 점이다. 자연적 규칙성은 자연물의 고정적이고 개관적 특성과 그를 지배하는 법칙에서 연유하는 반면에 사회적 규칙성은 인간의 의도적 상태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사회 현상의 의도적 특성은 자연과학에서는 볼 수 없는 유형의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많은 사회 현상은 다수의 개인들의 목적지향적 행위들의 집합적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 특정한 사회 현상을 창출해 내는 개인들이 무엇을 원하고, 그들의 환경적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며,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목적실현에 어떻게 기여하리라고 믿는지를 이해하고, 그 개인들의 행위가 서로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밝힘으로써 우리는 집합적 결과로서의 사회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24) Anthony Heath, *Rational Choice and Social Exchange*(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76) p.59.

개인들의 합리적 결정들의 집합체로서의 사회 현상에 대한 연구는 오래 전부터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맬더스(Malthus)의 인구론이나 맑스의 전술한 분석이나 그밖에 인간 행위의 의도되지 않은 결과에 대한 많은 학자들의 언급은 모두 좋은 예이다. 그러나 그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단편적이고 삽화적으로 제기되어 왔을 뿐,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못하였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 인간행위의 상호작용을 분석할만한 지적 도구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분석 도구들은 합리적 선택이론의 발달로 비로소 이용 가능해졌다. 게임이론, 집합 행동의 이론, 그리고 한계주의적 경제이론은 각각 다수의 합리적 개인들이 행위하는 일련의 상황 즉 전략적 대립과 협조의 상황이라든가, 공공재의 공급 상황 또는 시장 등에 있어서 그들의 행위로부터 그 집합적 결과를 도출해 내는 분석 도구들을 제공한다.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점점 많은 학자들이 거대한 사회, 경제, 정치현상을 개인들의 행위의 집합적이고 흔히 의도되지 않은 결과로 설명하고 있다. 몇 개의 예를 들어 보자.

기존의 혁명이론들은 그 이론체계의 어디에서인가 대중들의 구체제에 대한 불만의 정도(범위와 강도)를 혁명의 설명적 변수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이 불만이 어디에서 연유하는지에 관해서 이 이론들은 차이를 보인다. 맑스는 절대 빈곤의 상태 즉 노동자들이 족쇄 이외에 잃을 것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 혁명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현대挫折이론가들은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으나 그 개선의 정도가 대중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대중의 불만은 고조되고, 그 결과 혁명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모든 이론들은 혁명을 불만에 가득찬 많은 개인들의 행위의 단순한 加算의 결과로 본다는 점에서 모두 같다. 요약컨대, 이 이론들에 의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구체제에 대하여 보다 강한 불만을 가질 때 혁명은 일어난다.

그러나 올슨(Mancur Olson)은 사람들이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더라도 그 가치와 목표의 실현으로부터 생기는 혜택의 향유로부터 그 실현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배제할 수 없는 한 무임승차자의 문제로 그들의 공동 목표의 실현을 위한 노력은 무망함을 보여 준다. 그에 의하면 불만은 단순히 가산되지 않고 무임승차라는 상호작용의 기제에 부딪쳐 혁명이 아닌 무행위를 낳는다. 따라서 혁명의 발생 여부는 이 무임승차자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혁명의 리더쉽과 조직의 유효성에 의존한다. 팝킨(Samuel L. Popkin)은 결국은 공산화로 끝난 월남의 근대화 과정에 이 무임승차자의 논리를 적용하여 촌락사회에서의 집단행위의 부재와 이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의 공산당의 성공을 설명하고 있다.

유럽의 봉건제도는 농노들이 그들의 영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할 법적 의무를 근간으로 하는 장원제도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하나의 잉여이전 체계이고, 잉여 이전의 방법은 이밖에도 정해진 임금이나 정해진 임대료의 지불 또는 이들의 혼합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노스(Douglas C. North)와 토마스(Robert Paul Thomas)는 왜 강제적 노역이 농민으로부터 영주로의 잉여 이전의 방법으로 유럽 전역에 걸쳐 채택되었는가하는 문제를 대표적인 영주와 대표적인 농민 사이의二人 게임의 결과로 설명한다. 봉건제도란 영주와 농민 간의 재화의 교환체계로서 영주는 안전을 비롯한 다양한 공공재를 공급하는 반면에 농민들은 그 대가로 그들의 잉여를 영주에게 제공한다. 노스와 토마스에 의하면 이 교환체계로서의 노역제도는 당시의 비시장적 경제에 있어서 영주와 농민 모두에게 가장 효율적인 계약이라는 것이다. 고정적 임금제도는 수확이 좋은 나쁘든 일정액(현물)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영주에게 불리한 제도이고, 고정적 임대료는 수확이 좋은 나쁘든 일정액(현물)을 영주에게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농민에게 위험 부담이 큰 제도로서, 어느 것이나 영주와 농민 사이의 협상비용이 너무 큰 제도이다. 반면에 노역제도는 수확이 좋은 나쁘든 자동적으로 조절되기 때문에 모두에게 협상과 집행이 용이한 제도이다. 장원제도는 당시의 상황으로는 가장 효율적이고 따라서 농민이나 영주 모두가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제도였다.⁽²⁵⁾

위의 논의에서 영주와 농노는 현대 경제학에서 소비자나 생산자처럼 각 범주에 속하는 수많은 개인들을 대표한다. 이 대표성은 각 범주에 속하는 개인들의 결정상황과 선호구조의 유사성 내지 동일성에 기초한다. 노스와 토마스의 정원제도에 대한 설명은 결국 각 범주에 속하는 개인들은 대표적 영주나 대표적 농노의 선택과 같은 선택을 할 것이고, 유럽 전역에 걸친 二人 관계의 균형적 결과가 장원제도라고 부르는 경제적 현상을 낳았다는 것이다.

쉘링(Thomas C. Schelling)의 미국 도시의 흑백인 간의 주거 분리 현상에 대한 설명은 수많은 개인들의 행위가 단순한 가산과는 다른 집합적 결과를 낳는 상호행위의 또 하나의 유형을 모형화한다. 미국의 많은 도시에 있어서 누구의 눈에나 확연히 보이는 현상은 흑인과 백인이 따로따로 모여 살고 있다는 것이다. 쉘링은 어떻게 이러한 인종차별적 주거형태가 정부의 관여나 주민들의 집단적 결정에 의하지 않고 생기게 되었는지를 개인들의 선호에 대한 단순한 가정으로부터 설명하고자 한다. 그에 의하면, 각 개인의 인종에 대한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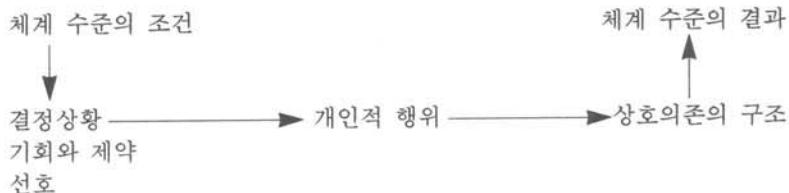
(25) North and Thomas, *The Rise of the Western World: A New Economic History*(Co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73) pp.31-32.

호에 있어서 사소한 편향이 그러한 거대한 사회적 현상을 가져 왔다는 것이다. 그는 각 인종 집단의 구성들이 특정 비율(예컨대 55%)의 인종적으로 혼합된 주거환경을 받아들이고 그 이상의 비율일 때에만 이사를 하더라도 이들 행위의 안정적 균형은 두 집단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집합적 현상은 모든 개인들이 완전히 분리된 주거환경을 선호하여, 그들의 선호를 가산한 결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만족스럽지 못한 주거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으로 옮겨가고, 그럼으로 해서 새환경에서의 혼합비율이 바뀌어 새로운 이동을 촉발함으로써 생기는 과급효과의 산물이다.⁽²⁶⁾

이러한 논의들이 보여 주는 공통점은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특정 사회현상에 대한 이러한 집합적 설명의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행위의 환경을 이루는 선택상황
 - (2) 선택 상황에 의해 규정된 제약, 기회 그리고 유인의 조건 아래서 합리적 인간들이 추구할 전략
 - (3) 그러한 전략들의 집합적 결과(새로운 제도, 규범 등의 사회현상)
- (1)과 (2) 사이에서 거시-미시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2)에서 특정한 행위들이 선택되고, (2)와 (3) 사이에서 미시-거시의 연계가 이루어진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합리적 선택이론의 설명 전략의 골격은 다음의 도표로 표현될 수 있다. 이 표는 또한 왜 합리적 선택론자들이 동시에 미시적 기반론자들인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과 반목적성(Counterfinality)

사회현상을 인간의 의도적 행위의 집합이라고 볼 때, 사회과학자들의 주목을 끄는 현상은 행위자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사회현상의 발생이다. 개인들의 행위는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거시적 결과를 가져온다. 개인들의 행위는

(26) T.C. Schelling, *Micromotives and Macrobbehavior* (New York: Norton, 1978) p.35 ff.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거시적 결과를 가져온다. 개인들의 행위는 가산되거나 서로 방해하거나 또는 달리 상호작용해서 그 결과가 행위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의도하지 않거나 예견하지 못한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고대 그리스로부터 시작되는 오랜 전통은 인간의 외부세계를 자연물과 인조물로 양분한다. 이러한 양분법은 한편으로는 자명하고도 의미있어 보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결함이 있다. 자연적인 현상을 인간의 행위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모든 사물로 특징화하고, 인조물을 인간 행위의 결과로 규정하는 한, 이 분류의 결함은 눈에 띠지 않는다. 그러나 자연의 영역을 인간 행위의 결과로 아니고 인간의 고안의 결과로 아님 것으로 규정하고, 인조의 영역을 이 양자의 결과인 모든 것으로 보면, 인간 행위의 결과이기는 하나 그 누구의 고안의 결과가 아닌 중간 영역의 존재를 알 수 있다.

인간 행위의 의도되지 않은 결과로서의 사회현상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 오래 전부터 인지되어 왔다. 그러나 그에 대한 설명방식은 시대에 따라 달랐다. 이 현상은 구라파의 중세시대까지는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신의 섭리의 표현으로 이해되었다. 머튼(Robert K. Merton)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저간의 사정을 잘 나타내고 있다.

목적지향적 행위의 예측되지 않은 결과는 사회 사상의 오랜 역사에 기여한 거의 모든 학자들에 의해 여러 형태로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이 문제 가 알려진 문맥의 상이성과 용어의 다양성이 이 문제를 고려하는 데 있어서의 명확한 계속성을 모호하게 하는 경향이 있었다. 사실상 문맥의 상이성 — 신학에서부터 기술에 이르기까지 — 은 너무나 현저해서 문제의 실질적 동일성이 간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 분석이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 문제를 그렇게 철저하게 분석하지 못한 것은 그것이 부분적으로는 초월적이고 윤리적인 고려와 역사적으로 연계되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분명히 행위의 예견되지 않은 결과를 신의 알 수 없는 의지나 섭리 또는 운명에 귀속시키는 손쉬운 해결은 신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그에 대한 과학적 분석의 어떠한 필요도 배제하였다.⁽²⁷⁾

이 문제에 대한 세속적 접근은 근대에 이르러서야 시작된다. 18세기 초의 밴더빌(Bernard Mandeville)을 효시로 보는데 큰 이의는 없을 것이다. 그의 “개인의 부도덕과 공공의 이익”(Private Vices, Public Benefits)은 스코틀랜드학파의 퍼거슨(Adam Furguson)의 “역사는 인간 행위의 결과이지만 그의 고안의 결과는 아니다”라는 유명한 귀절로 이어졌다. 퍼거슨의同時

(27) Robert Merton, "The Unanticipated Consequences of Purposive Social Ac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1, Dec., 1936, pp.894.

代人인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형성되는 경제현상에 관하여 논한다. 반세기 후 헤겔은 이성의 간지(the cunning of Reason)로 역사를 설명하고 다시 30년 후 막스는 인간의 자기 자신의 행위로부터의 소외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인간 행위의 의도되지 않은 결과로서의 사회현상’은 ‘유기체로서의 사회’와 함께 이 시대에 새로 등장하는 사회과학의 두 중심적 주제였다.⁽²⁸⁾

하예크(Friedrich A. von Hayek)에 의하면, 사회과학적 설명을 요구하는 문제는 바로 누구에 의해도 고안되지 않은 인간행위들이 보이는 어떤 질서라고 주장한다. 만약 사회현상이 인간에 의해 의식적으로 고안되는 한에 있어서의 ‘질서’만을 보인다면, 사회에 대한 이론적 과학의 여지는 없으며, 오직 사회질서의 고안자에 대한 심리학적 문제만 존재할 뿐이다. 그는 나아가서 19세기 후반부터 자연과학의 영향 아래 建造主義的 合理主義(constructivistic rationalism)의 풍미로 사회과학은 그의 ‘유일’한 이론적 문제를 방기해 왔다고 주장한다.⁽²⁹⁾

인간 행위의 의도되지 않은 결과로서의 사회현상에 대한 설명은 신의 섭리로부터 시작해서 현대에 이르러서는 인간 행위의 집합의 효과에 대한 탐구로 이어진다.⁽³⁰⁾ 인간 행위의 의도되지 않은 결과로서의 사회현상에 대한 집합적 설명의 대표적 예는 보이지 않는 손 설명이다. 보이지 않는 손 설명은 “누군가의 의도적 고안의 산물처럼 보이는 것을 그 누구의 의도에 의해서도 야기되지 않은 것으로 설명한다.”⁽³¹⁾ 이러한 유형의 설명들은 개인이나 집단의 성공적 노력에 의해 만들어졌음이 틀림이 없다고 생각되는 전반적인 유형이 그러한 유형이나 고안을 생각해 낼 수 없는 어떤 과정에 의해 산출되고 유지된다 는 것을 보여준다. 이하에서 인간행위의 상호작용의 어떤 유형이 이러한 설명의 대상이 되는지를 살펴 보기로 한다.

인간은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위하지만, 그 행위는 많은 경우 의

(28) Elster. *Nuts and Bolts for the Social Sciences*(Cambridge Univ. Press, 1989) p.91.

(29) 하예크는 이 건조주의적 합리주의의 승리를 ‘과학의 반혁명’ 또는 ‘이성의 남용’이라고 불렀다. 그의 저서, *The Counter-Revolution of Science*(London: Free Press, 1955)과 C. Nishiyama, et al., eds., *The Essence of Hayek*(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84) 참조.

(30) 이 두 극단의 중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설명은 음모이론 또는 ‘숨겨진 손’ 설명이다. 이는 확실히 의도적 고안의 결과가 아닌 단절된 사실들을 어느 개인이나 집단의 의도적 고안의 결과로 설명한다.

(31) Robert Nozick, *Anarchy, State, and Utopia*(New York: Basic Books, 1974) p.18.

도하는 바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했던 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결과를 수반하기도 한다. 한 특정한 행위가 행위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가져 오는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 머튼은 그들을 인간의 무지, 오류, 그리고 중요 이익의 직접성(imperious immediacy of interest)의 세 범주로 요약한다.⁽³²⁾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고려하는 행위의 의도되지 않은 결과는 특정 행위자의 속성으로부터 연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위자와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에 국한된다. 일단의 사람들이 행위할 경우 그 행위들은 서로 가산되거나 방해하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상호작용해서 그 누구도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

의도적 행위의 의도되지 않은 결과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현상은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인도된 듯한 현상이다. 개개인의 자기 이익의 추구가 공동 이익에 이바지한다. 각자는 자기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할 때 사회의 생산량 역시 최대화된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가는 전적으로 그 자신의 이윤동기에서 그렇게 하지만 소비재를 보다 싸게 생산함으로서 간접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증진한다. 개인적 욕망 충족을 위한 소비는 고용을 창출하고 따라서 고용된 다른 사람들의 소비기회를 창출한다. 아담 스미스에 의하면, 사회의 일반적 생산성에 기여하는 각 개인은 "단지 그 자신의 이익만을 의도하며, 많은 다른 경우에서처럼 이에 있어서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되어서 그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증진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증진되는 목적이 개인이 의도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 사회에 대하여 항상 더 나쁜 것도 아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서 각 개인은 종종 사회의 이익을 그가 참으로 그것을 증진하려고 의도할 때보다 더 효과적으로 증진한다."⁽³³⁾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 공익의 증진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이라고 믿었다.

보이지 않는 손은 (1) 모든 사람들이 지배전략을 가지며, (2) 모든 사람이 그들의 지배전략을 사용할 경우 생기는 (균형) 결과가 다른 모든 결과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그의 신비로움을 발휘한다. 지배전략이란 어느 한 전략이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든지 그 각 경우에 있어서 다른 전략보다 우월한 결과를 가져 올 때를 의미한다. 첫번째 특징은 행위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고려해야 할 이유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행위자들이 상호간의 관계에 대하여 양립 불가능한 가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정은 그들의 선택에 중

(32) 머튼의 전계 논문, p.901.

(33) Adam Smith,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Chicago: Encyclopaedia Britannica, 1952) p.194.

요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두번째 특징은 결과가 각자의 최선의 이익이 됨을 의미한다.⁽³⁴⁾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손은 일단의 사람들의 지배전략이 최적(optimal)의 결과를 가져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모든 의도되지 않은 결과가 아담 스미스가 생각하는 것처럼 행위자 모두에게 행복한 결과를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때로는 행위자 모두에게 참담한 결과를 가져다 주기도 한다. 부동(Raymond Boudon)은 이러한 현상을 倒錯的 效果라고 부르고,⁽³⁵⁾ 사르뜨르(Jean Paul Sartre)은 반목적성(counterfinality)이라고 지칭한다.⁽³⁶⁾ 사르뜨르가 든 중국 농부의 예에 의하면, 모든 농부들은 더 많은 땅을 갖기를 원하고, 모두가 더 넓은 땅을 갖기 위해 주위의 나무를 잘라내면, 대규모 벌목이 땅의 침식을 가져 오기 때문에 결국 모든 농부들은 땅을 잃게 된다. 이러한 반목적적인 의도되지 않은 현상의 예는 얼마든지 있다.

(1) 운동 경기의 관람자들 모두가 진행되는 경기를 더 잘 보기 위해 일어서면 결국 아무도 경기를 더 잘 보지 못하게 되고, 다리만 아프게 된다. 스위지(Paul Sweezy)는 이 논리를 자본주의의 운동법칙의 전형으로 보고, 씨로(Thurow)는 같은 논리를 사용하여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경쟁을 설명한다.

(2) 만약 모든 사람이 이자를 받기 위해 동시에 그들의 돈을 예금하면 아무도 이자를 받지 못할 것이고, 동시에 예금을 인출하면, 모두가 그들의 예금을 잃어 버리게 될 것이다. 주가가 오른다고 모두가 가진 주식을 내다 팔면, 주가는 폭락할 것이고, 아무도 주가차액을 실현하지 못할 것이다.

(3) 만약 모두가 노후의 보장책으로 가능한 한 많은 아이들을 갖는다면, 인구과잉으로 모두가 어려워지게 된다.

(4) 반목적성은 투표 행위에도 나타날 수 있다. 만약 어느 투표자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의 승리를 확신하고, 그러나 그 후보의 정치적 입지가 너무 강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려고 한다고 하자. 만약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는 사람이 많다면, 그들의 행위는 반목적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5) 인플레이션의 시기에 나중에 사용할 물건을 미리 사두는 것은 그 물건 값이 오를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구매자에게 이득이 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경우 인플레이션은 심화되고 장기화될 것이다. 경기침체에서 벗

(34) Elster, Logic and Society, p.108.

(35) R. Boudon,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Social Action(London: Macmillan, 1982).

(36) J.P. Sartre, Critique de Raison Dialectique(Paris: Gallimard, 1960).

어나기 위하여 모든 기업이 임금을 삭감하면, 그로 인해 결과되는 구매력의 상실은 공황을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예들은 몇 가지 공통적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우선 반목적적인 의도되지 않은 결과가 행위자 모두에게 피해를 가져온다. 많은 경우 의도되지 않은 결과의 피해자는 행위자들만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자 모두가 그 결과의 피해자에 포함될 경우에만 반목적적이다. 다음으로 반목적적 결과는 의도한 결과 대신에 발생하는 것으로, 의도한 결과에 부수해서 발생하는 결과는 반목적적이지 않다. 예컨데, 자동차가 공기를 오염시킨다는 것은 부수 현상이지만, 오염방지장치가 오염시킨다면 이는 반목적적이다. 끝으로 반목적적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의 주체들 각각은 ‘목적-수단’ 관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옳은 가정에 입각하지만 다른 행위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반화되면 구성의 오류를 범하게 되는 가정에서 행동한다. 농토를 넓히기 위하여 농토 주의에 있는 나무를 자른다는 것은 각 농부에게는 합리적 행동이지만, 이 개인적으로 합리적 행동을 모든 농부가 할 경우 모든 농부는 토지를 잃게 된다. 그러나 각 개인이 그러한 잘못된 가정에서 행동한다는 것은 단순히 무지나 오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자르는 행동이 지배전략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반목적성은 특정 상황에서는 불가피하다.⁽³⁷⁾ 반목적성은 (1) 모든 행위자들이 지배 전략을 가지며, (2) 모든 사람이 그들의 지배전략을 사용할 경우 생기는 (균형) 결과가 최적이 아닐(suboptimal) 경우에 발생한다.⁽³⁸⁾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반목적성과 보이지 않는 손은 같은 구조를 보인다. 각 개인은 이득을 얻기 위해 행동한다. 그런 행동을 함에 있어서 그는 부차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 이 부차적 영향은, 부정적인 것이든

(37) Elster, Logic and Society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78)
pp.109-112.

(38) 반목적성은 수인의 번민(prisoner's dilemma) 게임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이 게임의 보상행렬은 다음과 같다.

	C			
	협조		배반	
	협조	3	3	-5
R				5
	배반	5	-5	1
				1

위의 행렬에서 배반은 두 플레이어 모두에게 지배적 전략이고, 그 결과인 (1, 1)은 균형이다. 그러나 이 균형 결과는 모두에게 있어서 두 사람이 모두 협조했을 때의 결과보다 열등하다. 여기서 보상을 최대화하려는 각자의 의도와 결과 사이의 괴리를 보게 된다.

긍정적인 것이든, 일차적으로 의도된 이익에 비하면 사소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면, 각 개인은 많은 작은 피해 또는 많은 작은 혜택의 대상이 된다. 만약 이 부차적 효과 즉 외부효과가 긍정적인 것일 경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의 기제를 보게 된다. 아마도 아담 스미스가 생각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의 전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각 행위자는 y_1 을 가지고 y_2 를 얻기 위하여 x 라는 행동을 한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때 그들의 각각은 y_3 을 얻게 된다. 이 경우 $y_3 > y_2 > y_1$ 이다. 만약 부차적 영향이 부정적일 경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많은 작은 해의 총계가 일차적 이득보다 더 클 경우, 즉 $y_2 > y_1 > y_3$ 이다. 다른 하나는 축적된 해가 일차적 이득에는 아직 못 미치는 경우 즉 $y_2 > y_3 > y_1$ 이다. 첫째 경우는 행위의 결과가 그 행위를 하지 않음만 못한 것이고, 둘째는 행위의 결과가 기대했던 것보다 못한 경우이다. 첫번째 경우가 반목적성이다.⁽³⁹⁾

의도되지 않은 결과에 대하여, 두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제기되어 왔다. 하나는 반목적적 결과에 관한 것으로, 행위자들이 그들의 행위가 반목적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그들의 행위를 수정하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말하면, 그 대답은 '아니다'이다.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반목적적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는 개인적으로 지배전략이다. 따라서 그들의 행위를 지배전략으로 만드는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한, 그들의 행위의 결과가 반목적적이라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다른 행위는 접근 불가능하고 불안정하며 경험적으로도 어렵다. 모든 행위자들이 그들의 행위의 반목적성을 이해할 때 이 반목적성의 극복은 그들 모두의 이익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나 공동의 이익이 있다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여기에 반목적성의 불가피성이 있고, 따라서 반목적성은 '보이지 않는 손' 설명의 홀륭한 대상이 된다.

또 하나의 질문은 의도되지 않는 유익한 효과에 관한 것으로, 의도되지 않은 결과가 그를 가져온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⁴⁰⁾ 단일한 행위의 경우, 의도되지 않은 결과가 그를 가져온 행위를 설명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시간상 행위에 선행하는 어떤 사건만이 행위를 설명할 수 있다. 미래가 과거를 설명할 수는 없다. 의도적 행위에 대한 설명만이 이에 대한 예외이나, 지금 문제되는 것은 의도되지 않은 결과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설명의 대

(39) Elster, Bolts and Nuts, p.97.

(40) 행위자 모두에게 해로운 의도되지 않은 결과의 경우, 흔히 음모이론이 적용되어 왔다.

상이 단일한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인 행위 유형인 경우에는 유익한 의도되지 않은 결과가 내가 왜 그 행위를 내일에도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느냐로 재구성될 수 있다.⁽⁴¹⁾

이에 대한 긍정적 대답을 가능케 하는 몇 가지 현상이 있다. 우선 돌연변이와 자연도태의 현상이다. 어떤 행위가 우연히 이루어지고 그 효과가 생존에 유익하여 유형화되는 현상이다. 사회생활에서는 경쟁과 같은 인위적 선택의 기제가 자연 도태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또 하나는 강화(reinforcement) 현상이다. 어떤 행위의 결과가 행위자들에게 유익해서 그 행위를 다시 하게 되어 유형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첫번째 현상에서 어떤 행위가 우연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의도적 행위의 모형과 일치하지 않는다. 기능주의자들은 강화의 기제를 명시하지 않은 채 의도되지 않은 결과로 그 결과를 가져 온 행위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들은 어떤 행위 유형의 '인지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그 행위 유형을 '설명'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화를 가져 오는 환류기제가 명시되지 않는 한 기능주의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명백하다. 이 환류기제가 명시되는 한 기능주의는 더 이상 기능주의가 아닐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의도적 행위의 의도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집합적 설명이 '보이지 않는 손' 설명이다. 많은 경우, '보이지 않는 손' 설명은 아담 스미스의 경우에서처럼 유익한 효과를 가져 오는 의도되지 않은 결과에 국한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노직(Nozick)의 선례를 따라 여기서는 효과의 선악의 구분 없이 사용된다.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손'은 공동의 번영을 가져 올 수도 있고, 공동의 고통을 가져 올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인간들의 어떤 상호작용의 기제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듯이 아무도 고안하지 않고 의도하지도 않은 결과를 가져오느냐이다. 올만 마가릿(Edna Ullmann-Margalit)에 의하면, '보이지 않는 손'은 "참여하는 개인들의 행위들을 투입으로 받아들여 전반적 사회적 유형을 산출로 생산해내는 집합기제이다."⁽⁴²⁾ 이 전환과정이 시작되는 단계는 특정한 상황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개인적 의도, 믿음, 목표 및 행위만으로 구성되며, 최종 단계는 그들에 의해 추구된 바도 없고 예견된 바도 없는 전반적 유형이다. '보이지 않는 손' 설명은 이 두 단계의 형상을 연결하는 기제를 밝히는 것이다.

(41) Elster, Nuts and Bolts, p.98.

(42) Edna Ullmann-Margalit, "Invisible-Hand Explanations," *Syntheses* 39(1978) p.270.

결 어

1. 거시적 설명의 결함은 거시적 현상의 미시적 기반을 밝힘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 거시적 현상의 미시적 기반을 밝힌다는 것은 거시-미시와 미시-거시의 두 연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2. 합리적 선택이론은 이 두 연계를 확립하는데 가장 적절한 개념적 도구를 제공한다. 결정상황은 거시-미시의 연결고리이고, 인간 행위의 상호의존성의 구조는 미시-거시의 연결 고리이다.
3. 인간의 행위를 의도적인 것으로 보고, 사회현상을 이들의 집합적 결과라고 볼 때, 의도되지 않은 결과로서의 사회현상은 사회과학자의 가장 중요한 설명의 대상이다. 이에 대한 집합적 설명은 흔히 '보이지 않는 손' 설명으로 나타나는데, 이 설명이 가장 잘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은 '보이지 않는 손'의 현상과 반목적적 현상이다.